

논문접수일 : 2013.09.23

심사일 : 2013.10.06

게재확정일 : 2013.10.25

제주어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중심으로 -

Textile Pattern Design Applied by Jeju Language

- Focused on Typographic expression -

주저자 : 현명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Hyun myung-kwa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방법

2. 제주어의 특징

3. 제주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통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 3.1. 쌍아래아(으)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 3.2. 반복되는 표현법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 3.3. 특이한 어휘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논문은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5개의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된 제주어의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써,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다.

제주어에는 한반도의 표준어 및 다른 방언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중세 어휘의 원형과 독자적으로 형성된 단어, 차용어 등 다양하고 특이한 특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 중 쌍아래아(으)·반복되는 표현사용·제주어에서만 보여지는 특이한 어휘를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리듬과 접목시켜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패턴화로 전개하고 실제 상품에 맵핑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주어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우리나라 고대 언어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긴 타이포그래피적 조형물로서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패션문화 상품 개발에 응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주어 보존과 활용방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지역적 한계성을 탈피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곧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임을 재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제주어, 타이포그래피,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various utilization plans of Jeju language which was classified at level 4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out of five level of endangerment in language by the UNESCO and to develop textile designs through typographic expression.

Different from the standard language and other dialects in the Korean peninsula, Jeju language has kept unique and diverse features such as prototype of medieval words, independently established words and loanwords. Among those special features, this study developed textile design motif by integrating Ssang Arae a(으), repetitive expressions and unique words in Jeju language into visual rhythm of typography. Based on it, the study carried out various patterns and took mapping on actual products so that Jeju language could be used for textile design as typographic artworks with local characteristics as an island and having prototype of ancient language, and also could be applied to fashion culture product developments as representative and symbolic pattern of Jeju in order to suggest a new paradigm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Jeju language.

In consequence, this study expects to enhance the concept that the excellence of local traditional culture could improve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beyond the regional limitation as well as increasing pride of Jeju people and could lay a foundation of building up new competitivenes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dustry.

Keyword

Jeju Language, Typographic, Textile Pattern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들어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원형을 근거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산업 육성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함께 차별화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문화원형으로서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소재를 발굴해 내려는 시도와 아울러 다방면에서의 콘텐츠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김국원, 2006; 김서연, 2011; 김정실, 2013; 김향원 외 1인, 2012; 박용순, 2010; 정은자, 2011; 한왕모 외 1인, 2012)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000년에 들어서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가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세계콘텐츠 시장의 작품들이 큰 흥행을 일으키면서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 주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도하에 지난 10여 년(2002- 2010) 동안 우리 전통문화의 문화원형을 창조적으로 발현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 시나리오, 디자인, 상품화의 산업단계에서 필요한 독창적인 창작 및 기획소재 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세계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소재를 발굴하고 전통소재의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서 창의적인 창작소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김규찬, 2013).

오늘날 문화콘텐츠창작 및 기획에 필요한 독창적인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의 전통문화자산을 문화콘텐츠 창작의 핵심동력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문화원형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문화원형의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한 문화코드를 각 지자체의 문화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전략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만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 자원 중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원천자료로서 제주어를 재조명해볼 가치가 있는 무형의 문화소재로 선택하였다. 제주도에는 ‘제주어, 수놓음, 삼무정신, ㅈ·냥 정신’ 등의 타 지역과는 다른 전통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삼다, 삼재’라 불려 질 정도로 잦은 태풍과 홍수, 가뭄 등의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은 가난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지만, 오히려 도민들은 부지런하고 절약하며 서로 돕고 슬기롭게 대처함에 따라 형성된 삼무의 이상사회에서 유래되었다. 그 결과, 그것들은 제주도민의 자랑스러운 정신이면서 제주도 문화의 모든 측면에 내포된 기본 정신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 중 제주어에는 한반도 내륙의 언어와는 달리 우리나라 중세 어휘의 원형과 독자적으로 형성된 단어와 차용어 등이 어우러져 다양하고 특이한 특징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언어라는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처한 것이 오늘날 제주어의 현주소이다(강정희, 2011).

특히 제주어는 한국어의 다른 지역의 언어와는 달리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방언이라기보다는 한국어 본토 말과는 독립된 개별 언어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지구상에서 5개의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어를 방언이 아닌 개별 언어로 인정하였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방언에 관한 조례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에는 14년 만에 <제주어 사전> 개정증보판을 출간하였다. 같은 해 2월에는 1992년 창립됐다 활동이 중단되었던 ‘제주방언연구회’가 재창립하는 등 노력을 시작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내의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는 등 제주어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한 보존은 물론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제주도내에서의 제주어에 대한 보존과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0년 12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등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노력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강정희, 2012; 김세중, 2011).

그러므로 제주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나 ‘제주도 사투리노래경연대회’, ‘제주어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분야간의 접목, 디자인 및

IT분야 등 타산업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해 현재의 스마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글로컬문화의 한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

제주어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국어국문학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법적, 어휘적, 음운체계적 분석과 정리 등의 이론적 연구들(권미소, 2011; 김미정, 2010; 김순자, 2010; 문갑순, 2006; 이지은, 2001; 최안나, 2008; 정승철, 1998; 최안나, 2008)과 간혹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제주어 자체의 구조적 서체 개발(고창균, 2010) 또는 있는 그대로의 제주어의 CI작업을 통한 로고마크와 그 로고마크를 활용한 포장지 개발이라는 단편적인 디자인 개발 사례(정진숙, 1998), 관광과 관련하여 제주어의 의미를 표준어와 비교해지면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개발(이은주, 2013), 제주어 음악장르 개척(강문철, 2007), 상호와 간판에 제주어를 활용(김순자, 2011)하는 등의 연구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원형을 근거로 다양한 콘텐츠를 추출하고 그 속에 내포된 조형적 특징과 의미를 재해석하여 디자인에 활용하려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지역전통문화원형으로서 무형의 제주어가 지니는 가치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시각화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어의 특징 중 시각적으로 표현할 경우 그 어휘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미지화하여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모티브를 추출한 후 타이포그래피라는 현대적인 재해석 도구를 통해 텍스타일 패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도민을 비롯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어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형적 원형인 제주어가 전통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제작도구인 Adobe CS5(Photoshop, Illustrator) 및 TexPro 디자인 캐드를 이용한 제작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패턴화할 수 있는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제시한다.

2. 제주어의 특징

제주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과 인근 섬 지역에서 예로부터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토박이 언어로 제주도에서 1950년대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구사한다. 지역에 따라 '제주방언', '제주어', '제주사투리', '제주지역어' 등 다

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제주어는 '아래아(으)'를 포함한 9개의 단모음과 후음 계열에 'ㅎ' 외에 후두 유성음 'ㅇ[h]' 하나가 더 있는 20개의 자음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제주어의 어휘는 조수간만, 바람, 농기구, 우마(牛馬)의 명칭 등에서 특이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랜 해양생활에서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명칭을 붙인 데서 비롯되었고 육지와 격리된 상태에서 독자적 어휘들을 개발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순자, 2010; 정승철, 1998).

특히 접두사와 접미사를 포함한 접사가 다양하고 특이한 처격과 여격의 발달, '이녀·지녀'이라는 2인칭 대명사와 '일미·글미·절미, 야의(야이)·가의(가이), 자의(자이)'라는 3인칭 대명사 같은 독특한 인칭 대명사의 발달, 주체 높임법이 없는 점, 3등급의 상대 높임 체계, 질서 정연한 동작상 등의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중세 어휘의 쓰임과 한자어와 몽골차용어 등은 제주어에서만 두드러지는 어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어 중 아직까지 중세 어휘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래아와 쌍아래아의 쓰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지은, 2011). 즉, '말 [馬]', '다리 [橋]', 'ㄱ세 [剪]', '하루 [一日]', '오라이 [諸]', '오섯 [六]', '오답 [八]' 등은 『훈민정음』에 등장하였던 어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난 살앗주."라든가 "넘으난 넘엇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살다 보니까 살 수 있더라.", "넘었으니까 넘었지."라는 한숨과 회한이 담긴 제주 지역 사람들만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묘한 여운과 함께 이상야릇한 맛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반복 표현에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첩어가 있고, "사난 살앗주."나 "넘으난 넘엇주."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한한ㅎ다(많고 많다)", "존존ㅎ다(잘디 잘다)", "헨헨ㅎ다(헨디 헨다)" 등을 비롯하여, 일종의 동족목적어가 잇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좋은 곳다 곧고 굿이쁜 곳다 곱음네께(좋은면 좋다 말하고 굿으면 굿다라 말합니다).", "훤걸음 건다(바빠 걷는 걸음을 건다).", "놀음 놀단 보난(놀음 놀다 보니까)."과 같은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감저·지실(지슬 : 표준어 고구마와 감자를 뜻함), 강알(표준어 '살'), 도새기(뚝+애기: 표준어 돼지) 등과 '뚝지(어깨)', '상뻘(행주)', '배똥(배꼽)' 같은 특이한 어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쓸모없는 문서', 또는 '필요 없는 문서'의 뜻으로 쓰이는 '허맹이 문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허명(許溟)이라는 제주목사가 어려운 잡녀(해녀)들을 대신하여 수세를 내주어 세금을 내고 '폐지(증서)'가 쓸모없어지면서, 그 후 필요 없는 증서나 쓸모없는 문서 따위를 일컬을 때 '허명이 문서'라고 하듯 제주어에서는 한자어가 생활화된 조선 시대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대에 걸쳐 몽골과 관련되어 원나라가 설치한 목장을 설치하여 말을 방목함으로써 목축 어휘가 주축이 되어 '가달석(고삐 줄)', '고라(털빛이 누런 말)', '수룩(떼, 무리) 등과 같은 어휘들이 제주어에 정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3. 제주어의 타이포그래피적 표현을 통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란 활판술(活版術)이라고 하는 의미와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인간은 상징적 사고를 통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여러 단계의 변형을 통해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 언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시각화하기 위해 글자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의 복제 방법이 필요하게 된 과정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라는 개념이 파생된 것이다(김선미, 2011).

우리는 문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타이포그래피, 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별 없이 모두 '문자'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는 '타입'이라 하며, 다른 글자와 구별되는 그 글자의 특별한 형태, 즉 글자꼴을 '폰트' 또는 '타입페이스'라고 하고, 같은 스타일의 글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크기 및 굵기, 기울기를 갖고 있는 글자들을 모두 이야기할 때는 '타입 패밀리'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의미의 글자와 글자가 위치한 공간, 레이아웃된 모양 등 글자로 디자인된 상태 및 과정 모두를 폭넓게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리듬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활자를 예로 들어보면, 직선과 곡선, 수평선과 수직선, 사선적 요소, 시작과 끝 등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리드미컬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낱말들 사이(word space)는 글줄과 활자를 서로 다른 크기의 낱말 덩어리로 나누며, 서로 다른 길이와 무게를 가진 리드미컬한 운동체로 만들어 준다. 끊어진 글줄과 빈 글줄은 판 짜임새(composition)에 강세를 더해주며, 활자 크기 등급은 타이포그래피의 작업에 리듬을 부여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여 지는 시

각적 리듬은 조형적 그래픽에 아름다움을 더하며 관찰자에게 흥미로움과 함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각적 유도를 하는 등 그 표현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김서연, 2011; 김선미, 2008; 박우혁, 2011; 오수형,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주어의 다양한 특징 중의 하나인 중세어휘, 특히 쌍아래아(으)·반복되는 표현사용·제주어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어휘를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리듬과 접목시켜 도출한 모티브와 반복단위를 제작 도구인 Adobe CS5와 TexPro 디자인 캐드를 활용하여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색채배색은 제주의 자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색상을 의미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색채명은 CMYK 수치값으로 표시하였다.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은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 침장류, 넥타이, 토트백을 선정하여 3D 맵핑으로 제품에 시뮬레이션하여 문화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3.1. 쌍아래아(으)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제주어의 중세 어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아래아와 쌍아래아 중 이중모음인 '으'는 '으라이 [諸]', '으섯 [六]', '으답 [八]', '으든 [八十]', '으남은 [十餘]' 등과 같이 여러 개라는 의미의 쓰임을 나타낸다.

[표 1]은 이러한 쌍아래아 '으'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글자의 원형을 그대로 추출하고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를 설정한 후 숫자의 곡선의 반복을 통한 리드미컬한 이미지를 패턴화 하였다.

1-1은 쌍아래아 '으'를 반전시켜 나란히 배치하여 모티브를 설정한 후 상하좌우로 단순 반복 배치하여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70·M35·Y75, C60·M65·Y10, White의 칼라로 배색하여 제주 들녘과 돌담의 느낌을 담은 상큼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이미지로 심플하게 패턴화하였다.

1-2는 쌍아래아 '으'를 중앙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각 모서리 방향으로 90°로 복사하여 배치함으로써 모티브를 설정한 후, 이러한 모티브를 상하 마주보게 배치하고 이를 복사하여 90°로 뒤여 좌우로 배치함으로써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100, White, C40·M70·Y10, C100·M65·K30의 칼라로 배색하되 반복단위를 살짝 어긋나게 표현함으로써 제주 바닷속의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1-3은 쌍아래아 '으'를 반전시켜 위아래로 나란히

번호	문양 원본	모티프 및 반복단위	컬러	패턴 디자인	맵핑		
					침장류	넥타이	토트백
1-1			Main Color C70 M35 Y75 C60 M65 Y10				
		Sub Color White					
1-2			Main Color C100 White C40 M70 Y10				
		Sub Color C100 M65 K30					
1-3			Main Color C60 M80 Y75 K35 C70 M35 Y75				
		Sub Color C10 M40 Y85 C50 M55 Y85 White					

[표 1] 제주어의 쌍아래아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배치하고 이를 다시 45°로 복사하여 모티프를 설정한 후 중앙을 중심으로 모티프를 대칭되게 좌우로 단순 배치하여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60·M80·Y75·K35, C70·M35·Y75, C10·M40·Y85, C50·M55·Y85, White의 칼라로 배색하여 유채꽃과 어우러진 한 폭의 제주 풍경을 담아낸 듯한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이러한 쌍아래아 ‘으’를 모티프화하여 패턴화함으로써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여러 개라는 의미인 으라 이 즉, 숫자 6을 의미하는 으섯과 숫자 8을 의미하는 으답의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의 곡선적 리듬을 활용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듯이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 디

자인을 3D 맵핑으로 제품에 시뮬레이션하여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2. 반복된 표현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제주어의 어휘적 특징 중 제주 지역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법으로, 묘한 여운과 함께 이상 야릇한 말맛을 느끼게 하는 반복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 2]는 이러한 다양한 반복된 표현들 중 ‘잘디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존존하다’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글자의 원형을 그대로 추출하고 단순화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프를

번호	문양 원본	모티프 및 반복단위	컬러	패턴 디자인	맵핑		
					침장류	넥타이	토트백
2-1			Main Color C40 M70 Y10 C60 M45 Y30 C90 M80 Y65 K45				
		Sub Color White					
2-2	존존하다		Main Color C70 M35 Y75 C70 M70 M80 K40 C30 M30 Y35				
		Sub Color M75 Y50					
2-3			Main Color C50 M20 K40 C50 M35 Y100 M100				
		Sub Color C75 M100 Y35 K75 White C65 M100 Y15 K15					

[표 2] 제주어의 반복된 표현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설정한 후 크기의 차이와 무질서한 듯 질서정연한 직선적 배열을 통해 자잘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이미지를 패턴화 하였다.

2-1은 '존존하다'를 크기와 방향이 각기 다르게 펼쳐놓듯 배치한 후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비대칭으로 반전시켜 나란히 배치하여 모티프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중앙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각 모서리 방향을 향해 90°로 복사하여 배치함으로써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40·M70·Y10, C60·M45·Y30, C90·M80·Y65·K45, White의 칼라로 배색하여 제주 현무암을 잘랐을 때의 단면의 무수한 구멍들의 '잘디잘은'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2-2는 '존존하다'를 중앙을 중심으로 90°로 복사하

여 상하좌우로 배치한 후 포인트를 주기 위해 'ㅎ·'자만을 마주보게 대칭으로 복사하여 배치하고 이를 다시 상하좌우로 크기의 변화를 주어 배치함으로써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70·M35·Y75, C70·M70·Y80·K40, C30·M30·Y35, M75·Y50의 칼라로 배색하여 석양에 물든 제주 풍경 이미지를 자잘하면서도 단순해 보이게 패턴화하였다.

2-3은 '존존하다'를 완전 해체하여 재조합시켜 모티프를 만들었다. 우선 중앙을 중심으로 '존'자를 90°로 반복한 후 '다'자를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각각 위치하게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에 'ㅎ·'자를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게 90°로 반복 배치하여 모티프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중앙을 중심으로 기본 단순 반복을 통

번호	문양 원본	모티프 및 반복단위	컬러	패턴 디자인	맵핑		
					침장류	넥타이	토트백
3-1			Main Color C10 M40 Y85 C50 M55 Y85				
		Sub Color C75 M100 Y35 K75					
3-2	배낭		Main Color C100 M30 Y100 C50 M15 Y10 M35 Y100				
		Sub Color C100 M65 K30					
3-3			Main Color C50 Y45 M85 Y65 C30 Y100				
		Sub Color C55 M10 Y90 C30 M40 Y85 White					

[표 3] 제주어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어휘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해 상하좌우 네방향에 위치하게 한 후 포인트로 ‘ㅎ·’자를 중앙에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게 90°로 반복 배치하여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50·M20·K40, C50·M35·Y100, M100, C75·M100·Y35·K75, White, C65·M100·Y15·K15의 칼라로 배색하여 ‘존존ㅎ·다’라는 각각의 해체된 단어들의 자잘한 재조합을 통해 환상의 섬 제주라는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이러한 반복된 표현인 ‘존존ㅎ·다’를 모티프화하여 패턴화함으로써 자잘하다는 의미의 반복적인 표현의

묘하면서도 음률적인 느낌을 타이포그래피의 사선적·직선적 리듬을 활용하여 제주의 현무암과 추상적인 제주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3D 맵핑으로 제품에 시뮬레이션하여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3. 특이한 어휘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제주어에는 다른 방언과 기원을 달리하는 형태 또는 몽골어 등의 차용어가 관련되어 제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 제주어로

‘주맹기(주머니)’, ‘상고지(무지개)’, ‘계염지(개미)’, ‘구쟁기(소라)’, ‘생이(새)’, ‘눔빼(무)’, ‘바룻(해산물)’, ‘독지(어깨)’, ‘상빼(행주)’, ‘배똥(배꼽)’ 등 다양한 어휘들이 있다.

[표 3]은 이렇게 많은 제주어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어휘들 중 배꼽의 뜻을 갖는 ‘배똥’이라는 단어는 표준어에서 ‘빋복< 빋곱> 빋썩< 배꼽>’으로 발달한 것과는 달리 ‘비+ㅅ+동’으로 형성된 어휘이다. 여기에서 ‘동’은 ‘식물의 줄기에서 꽃이 피는 줄기’로, 꽃땀이를 ‘동넨 것, 동뭇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땀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글자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체한 후 재조합하여 디자인한 양식형 모티브로 설정한 후 자유롭게 이어지듯 반복 배열시킴으로써 끊기듯 자유롭게 이어지는 선의 느낌으로 식물의 줄기와 땀줄의 이미지를 패턴화 하였다.

3-1은 ‘배똥’이라는 단어를 사각형의 중앙을 중심으로 90°로 반복하여 가장 단순한 모티브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사각형의 중앙을 중심으로 90°로 상하좌우로 단순 반복 배치하여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10·M40·Y85, C50·M55·Y85, C75·M100·Y35·K75의 칼라로 배색하여 ‘배똥’의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중 ‘땀줄’의 의미와 척박한 제주의 땅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 제주인의 삶의 유연함을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이미지로 패턴화하였다.

3-2는 ‘배똥’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한 후 식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듯한 모티브를 설정한 후, 사각형의 중앙을 중심으로 90°로 상하좌우로 단순 반복하고 이를 다시 중앙을 중심으로 90°로 상하좌우로 단순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100·M30·Y100, C50·M15·Y10, M35·Y100, C100·M65·K30의 칼라로 배색하여 ‘배똥’의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인 식물의 줄기와 꽃이 피는 줄기의 이미지를 직선과 곡선의 느낌으로 패턴화하였다.

3-3 또한 ‘배똥’이라는 단어 중 ‘배’자는 그대로 사용하고 ‘똥’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한 후 이 두글자를 사각형의 중앙을 중심으로 상하좌우 대칭되도록 복사하여 모티브를 설정한 후 중앙을 중심으로 모티브를 대칭되게 상하로 단순 배치하여 기본 반복단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C50·Y45, M85·Y65, C30·Y100, C55·M10·Y90, C30·M10·Y90, C30·M40·Y85, White의 칼라로 배색하여 제주의 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였다.

이러한 제주어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어휘인 ‘배똥’을 모티브화하여 패턴화함으로써 단어가 갖는 어원인

식물의 줄기와 꽃, 그리고 땀줄이라는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의 직선적이면서도 곡선적인 리듬을 활용하여 단어가 갖는 실제 의미를 제주의 자연과 더불어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3D 맵핑으로 제품에 시뮬레이션하여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어의 보존,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는 물론 제주문화 관광 상품으로써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주어의 다양한 특징 중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쌍아래아·반복되는 표현사용·제주어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어휘를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리듬과 접목시켜 도출한 모티브와 반복단위를 제작도구 Adobe Photoshop과 Adobe Illustrator를 사용하여 적절한 색상과 배열방식으로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과 이를 실제 상품에 맵핑하여 제시하였다.

쌍아래아(으)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은 여러개를 의미하는 언어의 실제 숫자인 ‘6’과 ‘8’의 이미지를 곡선적 타이포그래피의 리듬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3D 맵핑을 통해 제품에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문화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반복된 표현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은 ‘잘디잘다’라는 의미를 갖는 ‘존존ㅎ·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사선과 직선적 타이포그래피의 리듬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3D 맵핑을 통해 제품에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문화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이한 어휘를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은 ‘배똥’이라는 의미를 갖는 ‘배똥’이라는 단어의 실제 어원의 이미지를 직선과 곡선적 타이포그래피의 리듬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3D 맵핑을 통해 제품에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문화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제주어를 활용한 디자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 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통문화상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무형의 제주어를 유형의 시각화된 문양으로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함으로써 전통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어의 원형과 독자적으로 형성된 단어들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제주어의 무

형적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타이포그래피와 점목시커 도출한 모티브를 적절한 배열방식으로 개발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제시하고, 3D 맵핑을 통해 패션문화상품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어를 응용한 모티브 개발을 통해 현대적 감각의 타이포그래피적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창출은 물론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대한 의식고취 및 보존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학제간의 크로스오버와 실제 브랜드와의 협약을 통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문철 (2007). 「제주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주 음악장르의 개척 방안」(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강정희 (2011).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방안: 제주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36, 53-83.
- 강정희 (2012). 소멸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 『영주어문화회지』, 23, 185-205.
- 고창균 (2010). 「제주어를 이용한 제주서체 개발」,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국원 (2006). 「한글모티프를 활용한 패브릭타일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규찬 (2013).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 『언론정보연구』, 50(1), 276-308.
- 김서연 (2011). 「한글을 응용한 섬유조형표현연구-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미 (2008).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시각 표현 연구(해체적 표현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자 (201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자 (2011). 「온전한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는 '제주어 표기법 제정' 서둘러야 : 사라지는 제주어 사용 실태와 보전 노력」(교육제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김세중 (2011).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제주도연구』, 36, 35-52.
- 김정실 (2013). 한국전통꽃창살문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9, 337-346.
- 김향원 (2012). 고려 시대 문양의 현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6, 399-407.
- 문갑순 (2006). 「제주 방언 부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순 (2010). 「문화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전통 매듭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우혁 (2011). 「구조와 작용의 덩이로 본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수형 (2007). 「한글의 조형성을 활용한 패턴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 (2013). 지역속으로 : 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 외국인, 제주관광 어렵지 않아요! -"제주관광통역비서" 스마트폰 앱(App) 출시, 내 손안의 "제주관광통역비서"로 스마트하게 소통하세요!, 『지역정보화』 79, 102-105.
- 이지은 (2001). 「‘.’의 소실과 방언 분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철 (1998).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8(4), 133-152.
- 정은자 (2011). 「규방소품 제작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숙 (1998). 「제주 방언을 활용한 관광상품 브랜드의 포장이미지 표현을 위한 연구 : 관광패시용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안나 (2008). 「표준어와 제주 방언의 시간 부사유의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왕모 외 1인 (2012). 한성백제시대의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용 써피스 패턴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7, 31-40.
- 네이버 지식백과. (2013.9.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7183&cid=85&categoryId=2644>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2013.9.2),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2008